

보성군, 제14기 보성생명농업대학 '딸기반, 한우반' 입학식 개최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서 입학생 84명 참여해 11월 20일까지 과정당 15회 70시간 수업 진행

보성군은 지난 16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입학생 84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4기 보성생명농업대학 입학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14기 보성생명농업대학(학장 김철우 보성군수)'은 보성군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딸기반 44명과 한우반 40명, 총 84명, 2개 과정으로 운영되며, 입학식을 시작으로 11월 20일까지 과정당 15회 70시간에 걸쳐 수업이 진행된다. 한우반과 딸기반은 2011년과 2019년도에 각각 추진됐으나, 전년도 농업인 교육 수요 조

사 결과 두 과정 모두 군민들이 높은 수요를 보여 올해 다시 추진한다. 주요 공통 교육과정은 사업계획 수립, 실용 발효기 제작 실습, 농기계 안전교육 등이며, 선진지 현장 견학과 실습 교육을 편성해 농업인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이 이뤄진다. 딸기반은 수경별 관리 기술, 딸기 육묘 및 병해충 관리, ICT와 스마트팜 이해, 딸기 화아분화의 이해 등이 실시되며, 한우반은 친환경 조사료 생산기술, 한우 사양관리 및 주요 질병

예방관리, 인공수정, ICT 활용 축사환경관리 등을 교육한다. 보성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육생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 새로운 농업기술 및 농업환경 변화에 맞춘 다양한 교육을 추진할 것"이라며, "보성군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새로운 도전을 위해 용기 내 입학한 교육생 84명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라며 "보성생명농업대학 딸기반과 한우반 교육을 통해 배운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보성군 농업의 발전을 위해 앞장서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보성=김순숙기자

순천시,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30팀 최종 선발

지역문제 주도적 해결 및 청년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체 선정 완료

순천시는 최근 순천시 청년센터에서 2024년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참여 신청한 31개 공동체를 대상으로 선정심사를 진행했다. 앞서 지난 3월 8일부터 4월 5일까지 청년공동체를 공개모집한 결과 총 31개 팀이 신

청했으며, 이날 선정심사에는 공동체가 직접 공동체를 심사하는 선호도 평가점수와 심사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30팀의 공동체를 최종 선정했다. 더불어 사업 운영방향 안내 및 공동체간 네트워킹도 진행하여 참여팀 간의 정보공유

와 친목의 시간도 함께 가졌다. 선정된 청년공동체에는 진입, 성장, 프로젝트의 순현형 I, 전남형, 순천형 II의 3개 유형에 따라 250만원에서 최대 1,500만원의 사업수행비와 네트워크 활동을 지원한다. 이들은 △K-디즈니 연계 관광활성화 △원도심활력화 △청년주도 행사·교육 △청년취·창업 지원 △장애인 인식 개선 등 청년이 주도하는 다양한 과업들을 수행하며 지역사회 활력에 기여할 전망이다. 청년공동체 활동은 5월에서 11월까지이

며, 공동체 활동 종료 후 성과공유회를 개최하여 애로사항 및 개선점,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고, 활동이 우수한 공동체에는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나윤현 청년정책과장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다양하고 창의적인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높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청년들과 함께하는 활동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기자



여수 MICE,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 1위...2년 연속

여수시가 소비자 직접 선정한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미이스산업도시' 분야에서 2년 연속 1위를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시에 따르면 1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국내 언론을 대표하는 MBC, 동아닷컴, 환경닷컴 등 종합지, 경제지, 방송국 3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이 열렸다. 이날 여수시는 MICE산업도시분야에서 광주광역시와 경주시·고양시·수원시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여수시는 지난해 MICE행사 개최 건수가 1,356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MICE산업의 급성장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었다. 또한 대한민국 코리아 유니크베뉴 선정(에울마루&장도), MICE관련 포럼 개최, 한국 MICE협회 업무협약 체결 등 다각적이고 차별화된 마케팅 시도로 여수 MICE브랜드 인지도 높여왔다. 특히 기존 학·협회 행사 유치에서 기업회의, 해외 인센티브 투어 등을 확대하고 해외 주요 여행사와 업무협약 체결(2개교 12개 여행사) 및 해외 기업행사 유치 등 해외 MICE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했다.

여수=기동취재본부

광양시, '엄마, 아빠 책 읽어주세요!' 행사로 영유아 도서지원 알려

'그림책 읽어주는 시장님', '책놀이 활동' 등 기념행사 열려



광양시가 16일 희망도서관 꿈나무극장에서

'2024년 생애 첫 책 & 북스타트 기념 '엄마,

아빠 책 읽어주세요!' 행사를 개최해 영유아 대상 도서지원 사업의 성공적인 시작을 알렸다. 이번 행사는 올해 광양시에서 처음 시작하는 '생애 첫 책 지원사업'과 영유아 발달단계별 맞춤형 책 꾸러미를 배부하는 '북스타트' 사업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영유아 가족 150여 명이 참석해 '책 읽어주는 시장님', '책놀이 활동-계란 마라카스 만들기', '매직버블쇼' 등 다채로운 행사를 즐겼다. 이날 정인화 시장은 2024년 북스타트 선정 도서 중 하나인 이서영 작가의 「오늘 뭐 했니」 그림책을 아이들에게 읽어주며 영유아부터 이어지는 독서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정 시장은 "아이들에게 어린 시절부터 책 읽는 습관을 키워주고, 책과 친해지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생애 첫 책 지원 등 영유아 독서 지원에 힘쓰고 있으니 오늘 행사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책도 많이 읽고 책과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시민은 "아이에게 어떻게 책을 읽어주면 좋을지 알려주고, 아이와 함께 책 놀이 활동도 해볼 수 있어서 좋았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에게 책 꾸러미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계속됐으면 좋겠다"고 참여 소감을 전했다. 시는 이날 행사를 시작으로 2024년 광양시에서 출생한 모든 아이에게 생애 첫 책 꾸러미를 제공하고, 이후 13개월 유아부터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까지 700명에게 북스타트 책 꾸러미를 추가 배부할 예정이다. 생애 첫 책 꾸러미는 읍면동 출생신고 시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다음 달에 집으로 배송될 예정이다. 북스타트 책 꾸러미는 광양시 주소가 기재된 1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1부를 가지고 희망, 중마, 용강, 금호도서관 중 가까운 도서관에 방문하면 선착순으로 수령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광양시는 생애 첫 책 지원사업을 알리기 위해 사업 홍보 영상과 북스타트 선정 도서별 책 놀이 영상을 배포하고, 북스타트 단계별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책 읽는 가정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광양=기동취재본부

2023년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깨끗한 전남 만들기 함께해요

사용금지
품목

1회용 종이컵

1회용 빨대·젓는 막대

1회용 우산 비닐

1회용 쇼핑백

전라남도